

EU와 Mercosur의 FTA 추진과 경제적 효과 분석

박순찬(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유태환(목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February 2006

Contents

- I. 서론
- II. EU와 Mercosur의 무역구조
- III. EU와 Mercosur의 FTA 추진과 주요 논의
- IV. EU-Mercosur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 V. 결론

This version is a draft for comments. Please, do not quote.

I. 서론

2000년 11월에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또는 양자(국)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¹⁾

이와 같은 경향은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신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다자주의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달성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국이 지역주의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대안으로 고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지역주의 불참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와 기존의 지역주의 방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라는 소극적 이유뿐만 아니라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경제구조 개혁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라 세계무역환경은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다변화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목할 현상은 자유무역협정의 형태가 양국간 또는 특정 국가와 경제공동체와의 협정체결에서 나아가 경제공동체간의 협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EU와 Mercosur의 FTA 체결 논의는 WTO에 통보된 관세동맹(customs union) 단계의 경제공동체간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²⁾

1991년 3월 아순시온 조약을 통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로 출발한 Mercosur(남미 공동시장)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의 공동시장(common market)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Mercosur 회원국들은 1995년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s)를 설정하고 관세동맹을 체결했으나 지금까지 역내관세가 남아 있고 일정기간 예외품목 규제를 두고 있어 불완전한 관세동맹상태를 유

1) 2004년 10월 현재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208건이며, 1990년 이후 178개의 RTA가 발효됨으로써 최근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WTO, 2004)

2) EU와 FTA를 체결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레소토와 함께 관세동맹을 맺고 있으나, EU와 나머지 관세동맹 회원국과는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U가 Mercosur와 FTA를 체결하면 첫 번째 관세동맹간의 FTA가 된다.

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즉 Mercosur가 초국가적 기구가 아닌 정부간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점, 2004년 기준 약 95%의 상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역내 교역비중은 주요 경제공동체 중 가장 낮은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 또한 동년 기준 대외공동관세 적용품목의 비중이 약 70%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완전한 관세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ercosur가 EU형 공동시장 결성을 추진하고 있고 2006년까지 관세동맹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EU-Mercosur FTA를 최초의 관세동맹간 FTA로 간주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Literature review will be added here>

본고는 25개 회원국에 인구 4억 5천만 명, GDP 약 9조 달러, 전 세계 수출입의 약 38%(2003년 기준)를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공동체인 EU와 남미 4개국으로 결성된 Mercosur간의 통합 논의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EU는 2004년 5월 동유럽 및 지중해의 10개국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여 총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으나 본고에서는 GTAP Database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15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가 2005년 12월 Mercosur에 가입함으로써 남미공동시장은 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으나 본고에서는 기존 4개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Mercosur의 인구는 약 2억 3천만 명, GDP는 약 6천 6백억 달러이고 전 세계 수출입의 약 1.2%(200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교역현황을 중심으로 EU와 Mercosur의 경제협력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EU와 Mercosur의 FTA 논의와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일반균형 연산모형(CGE Model)을 이용하여 EU-Mercosur FTA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EU와 Mercosur의 무역구조

1. EU와 Mercosur의 對세계 무역구조

<표> 전세계 수출에 대한 EU(15국)와 Mercosur의 비중

(단위: 백만 유로, %)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World	2034000	100.00	3449000	100.00	5162000	100.00	6446000	100.00	6196000	100.00	6477000	100.00	7482000	100.00
EU	753835	37.06	1508795	43.75	2083745	40.37	2316290	35.93	2318780	37.42	2466145	38.08	2894405	38.68
Intra-exp	458748	22.55	979658	28.40	1333892	25.84	1446207	22.44	1435908	23.17	1523178	23.52	1795223	23.99
Extra-exp	295058	14.51	529137	15.34	749581	14.52	870084	13.50	882870	14.25	942969	14.56	1099183	14.69
Mercosur	29522	1.45	46419	1.35	70498	1.37	84591	1.31	87816	1.42	88883	1.37	105891	1.42
Argentina	8021	0.39	12353	0.36	20967	0.41	26341	0.41	26543	0.43	25709	0.40	29349	0.39
Brazil	20132	0.99	31414	0.91	46506	0.90	55086	0.85	58223	0.94	60362	0.93	73084	0.98
Paraguay	310	0.02	959	0.03	919	0.02	869	0.01	990	0.02	951	0.01	1289	0.02
Uruguay	1059	0.05	1693	0.05	2106	0.04	2295	0.04	2060	0.03	1861	0.03	2169	0.03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표> 전세계 수입에 대한 EU(15국)와 Mercosur의 비중

(단위: 백만 유로, %)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World	2075000	100.00	3550000	100.00	5279000	100.00	6705000	100.00	6466000	100.00	6715000	100.00	7765000	100.00
EU	847000	40.82	1558035	43.89	2050935	38.85	2404870	35.87	2361115	36.52	2463085	36.68	2914240	37.53
Intra-imp	456391	21.99	981525	27.65	1337738	25.34	1450377	21.63	1440048	22.27	1527570	22.75	1800400	23.19
Extra-imp	390607	18.82	576510	16.24	713196	13.51	954495	14.24	921068	14.24	935515	13.93	1113840	14.34
Mercosur	37797	1.82	29295	0.83	79916	1.51	89570	1.34	83914	1.30	62229	0.93	68747	0.89
Argentina	10541	0.51	4076	0.11	20122	0.38	25280	0.38	20320	0.31	8990	0.13	13813	0.18
Brazil	24691	1.19	22524	0.63	53783	1.02	58631	0.87	58351	0.90	49603	0.74	50665	0.65
Paraguay	615	0.03	1352	0.04	3144	0.06	2193	0.03	2182	0.03	1672	0.02	2079	0.03
Uruguay	1680	0.08	1343	0.04	2867	0.05	3466	0.05	3061	0.05	1964	0.03	2190	0.03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표> EU(15국)와 Mercosur의 무역수지 변화

(단위: 백만 유로, %)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European Union	-93165	-49240	32810	-88580	-42335	3060	-19835
Intra-imports	2357	-1867	-3846	-4170	-4140	-4392	-5177
Extra-imports	-95522	-47373	36655	-84411	-38198	7454	-14657
Mercosur	-8275	17124	-9418	-4979	3902	26654	37144
Argentina	-2520	8277	845	1061	6223	16719	15536
Brazil	-4829	8890	-7277	-3545	-128	10759	22419
Paraguay	-305	-393	-2225	-1324	-1192	-721	-790
Uruguay	-621	350	-761	-1171	-1001	-103	-21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표> EU(15국)의 주요 무역상대국(2004)

(단위: 백만 유로, %)

순 위	수입			순 위	수출			순 위	무역규모		
	국가	금액	%		국가	금액	%		국가	금액	%
	세계	1029326	100		세계	963709	100		세계	1993035	100
1	미국	157670	15.3	1	미국	234140	24.3	1	미국	391810	19.7
2	중국	126912	12.3	2	스위스	75035	7.8	2	중국	175043	8.8
3	러시아	80476	7.8	3	중국	48131	5.0	3	스위스	136495	6.8
4	일본	73745	7.2	4	러시아	45712	4.7	4	러시아	126188	6.3
5	스위스	61460	6.0	5	일본	43210	4.5	5	일본	116955	5.9
6	노르웨이	56038	5.4	6	터키	38024	3.9	6	노르웨이	86791	4.4
7	터키	30951	3.0	7	노르웨이	30752	3.2	7	터키	68975	3.5
8	한국	30251	2.9	8	캐나다	21950	2.3	8	한국	48066	2.4
9	대만	23645	2.3	9	호주	19858	2.1	9	캐나다	38200	1.9
10	브라질	21131	2.1	10	홍콩	19164	2.0	10	대만	36472	1.8
*	Mercosur	28304	2.7	*	Mercosur	18361	1.9	*	Mercosur	46665	2.3

<표> Mercosur의 주요 무역상대국(2004)

(단위: 백만 유로, %)

순 위	수입			순 위	수출			순 위	무역규모		
	국가	금액	%		국가	금액	%		국가	금액	%
	세계	73096	100		세계	108064	100		세계	181160	100
1	EU	19694	26.9	1	EU	25992	24.1	1	EU	45686	25.2
2	미국	15955	21.8	2	미국	19623	18.2	2	미국	35578	19.6
3	아르헨티나	5259	7.2	3	중국	8465	7.8	3	중국	12546	6.9
4	브라질	4984	6.8	4	브라질	5597	5.2	4	브라질	10581	5.8
5	중국	4081	5.6	5	칠레	5238	4.8	5	아르헨티나	10074	5.6
6	일본	2549	3.5	6	아르헨티나	4815	4.5	6	칠레	6963	3.8
7	칠레	1725	2.4	7	멕시코	3656	3.4	7	일본	5600	3.1
8	나이지리아	1719	2.4	8	일본	3051	2.8	8	멕시코	4388	2.4
9	스위스	1258	1.7	9	캐나다	1722	1.6	9	한국	2918	1.6
10	한국	1243	1.7	10	한국	1675	1.6	10	캐나다	2455	1.4

2. EU와 Mercosur의 상호 무역구조

EU는 Mercosur의 첫 번째 무역상대국으로 Mercosur 수출입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Mercosur에 대한 첫 번째 해외직접투자국이다. 1990년대 이후 EU와 Mercosur의 양 공동체 간 무역규모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Mercosur는 EU의 9번째 무역상대국으로 EU 수출입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EU와 Mercosur의 상품무역은 466억 유로, 서비스무역은 83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Mercosur는 약 100억 유로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

했다.

<표> EU(15국)와 Mercosur의 상호 수출입

(Million dollars and percentage)

		1980		1990		2000		2001		200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EU	총 수출	753835	100.00	1508795	100.00	2316290	100.00	2318780	100.00	2466145	100.00
	총 수입	847000	100.00	1558035	100.00	2404870	100.00	2361115	100.00	2463085	100.00
	대 Mercosur 수출	5278	0.70	16860	1.12	23902	1.03	24333	1.05	18246	0.74
	대 Mercosur 수입	13678	1.61	15033	0.96	23637	0.98	24577	1.04	24105	0.98
Mercosur	총 수출	29522	100.00	46419	100.00	84591	100.00	87816	100.00	88883	100.00
	총 수입	37797	100.00	29295	100.00	89570	100.00	83914	100.00	62229	100.00
	대 EU 수출	13678	46.33	15033	32.39	23637	27.94	24577	27.99	24105	27.12
	대 EU 수입	5278	13.96	16860	57.55	23902	26.69	24333	29.00	18246	29.32
EU의 대 MERCOSUR 무역수지		-8400		1827		265		-244		-5859	

EU는 Mercosur의 가장 큰 농산물 수입국이며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기초상품이 對EU 수출의 63%를 차지한다. 반면에 EU는 제조업 상품, 특히 화공제품, 기계,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운송장비류는 對Mercosur 수출의 50%, 화공제품은 22.5%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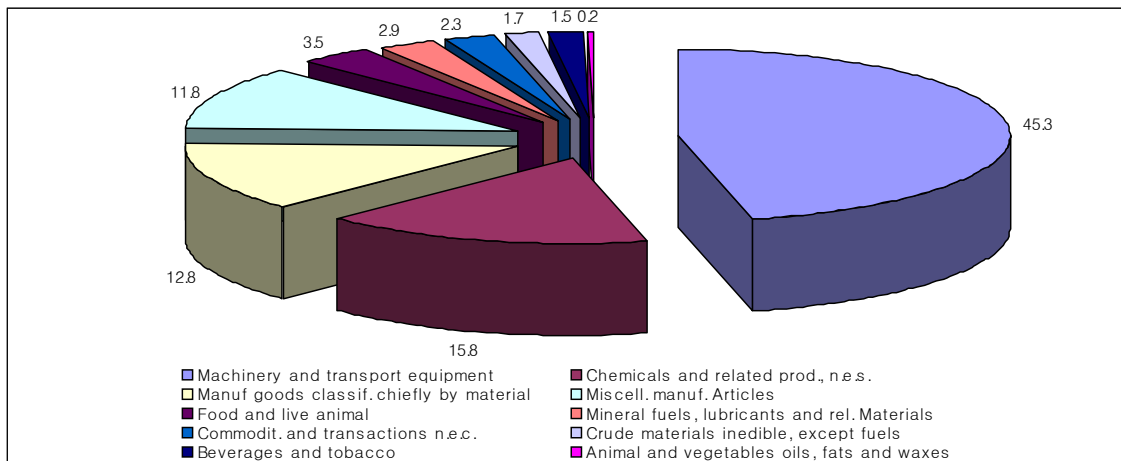
<Excel files and explanations will be added here>

3. EU와 Mercosur의 산업별 무역구조

<표와 그림> EU(25국)의 상품별 對세계 수출(2004)

(단위: 백만 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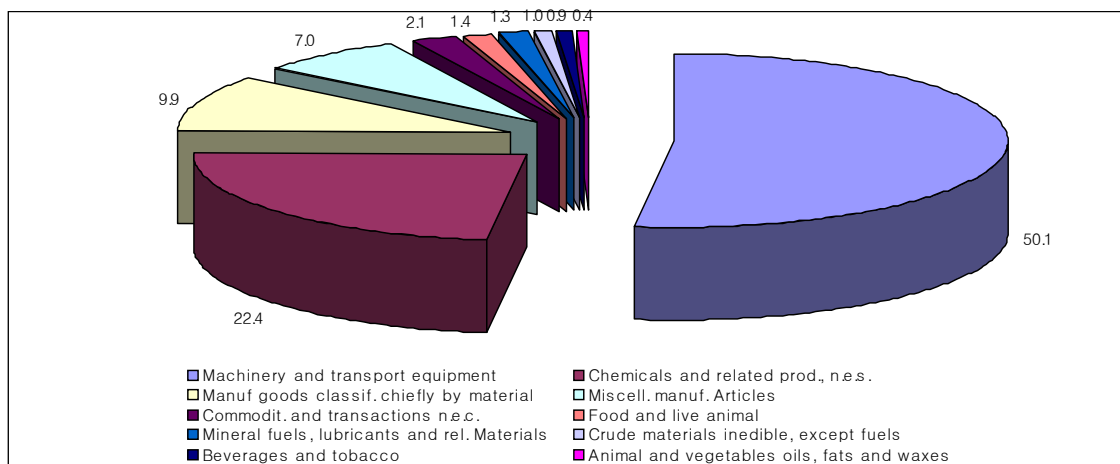
상품명	수출금액	비중
TOTAL	963709	100.0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436479	45.3
Chemicals and related prod., n.e.s.	151921	15.8
Manuf goods classif. chiefly by material	123405	12.8
Miscell. manuf. Articles	113817	11.8
Food and live animal	33560	3.5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 Materials	27757	2.9
Commodit. and transactions n.e.c.	22616	2.3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	16757	1.7
Beverages and tobacco	14817	1.5
Animal and vegetables oils, fats and waxes	2366	0.2



<표와 그림> EU(25국)의 상품별 對Mercosur 수출(2004)

(단위: 백만 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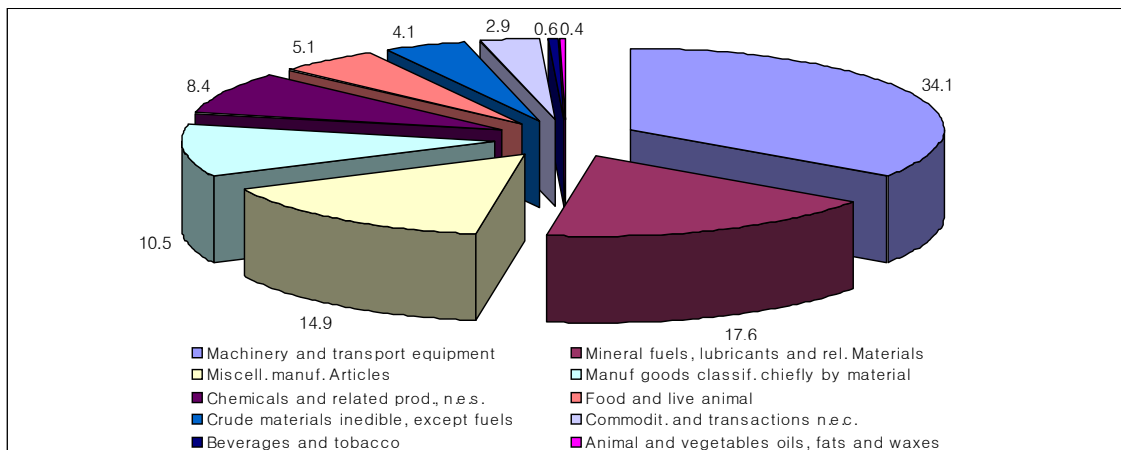
상품명	수출금액	비중	총수출에 서의 비중
TOTAL	18361	100.0	1.9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9208	50.1	2.1
Chemicals and related prod., n.e.s.	4122	22.4	2.7
Manuf goods classif. chiefly by material	1823	9.9	1.5
Miscell. manuf. Articles	1294	7.0	1.1
Commodit. and transactions n.e.c.	383	2.1	1.1
Food and live animal	249	1.4	0.9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 Materials	233	1.3	1.0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	180	1.0	1.1
Beverages and tobacco	159	0.9	1.1
Animal and vegetables oils, fats and waxes	74	0.4	3.1



<표와 그림> EU(25국)의 상품별 對세계 수입(2004)

(단위: 백만 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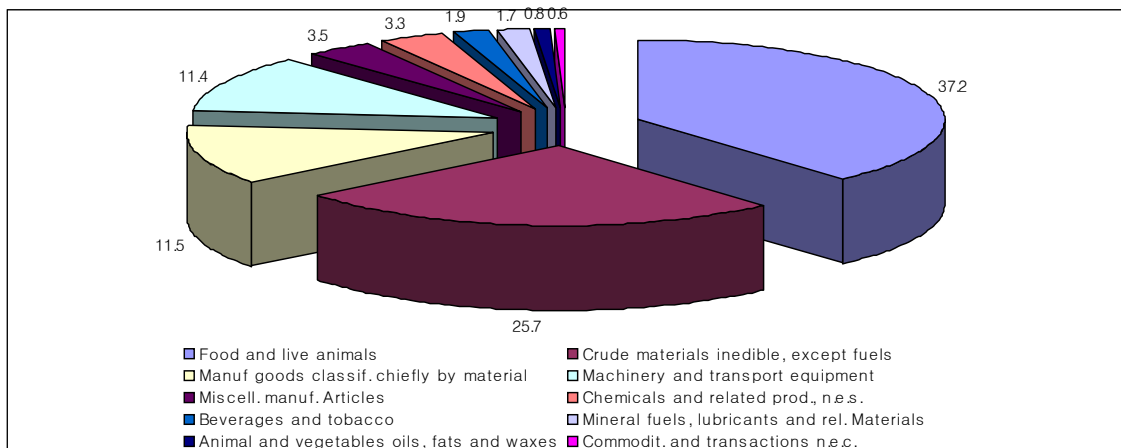
상품명	수입금액	비중
TOTAL	1029326	100.0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351356	34.1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 Materials	181071	17.6
Miscell. manuf. Articles	153595	14.9
Manu. goods classif. chiefly by material	107708	10.5
Chemicals and related prod., n.e.s.	86307	8.4
Food and live animal	52082	5.1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	42474	4.1
Commodit. and transactions n.e.c.	29930	2.9
Beverages and tobacco	5680	0.6
Animal and vegetables oils, fats and waxes	3657	0.4



<표와 그림> EU(25국)의 상품별 對Mercosur 수입(2004)

(단위: 백만 유로, %)

상품명	수입금액	비중	총수입에서 의 비중
TOTAL	28304	100.0	2.7
Food and live animals	10536	37.2	3.0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s	7266	25.7	4.0
Manuf goods classif. chiefly by material	3254	11.5	2.1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3228	11.4	3.0
Miscell. manuf. Articles	978	3.5	1.1
Chemicals and related prod., n.e.s.	936	3.3	1.8
Beverages and tobacco	536	1.9	1.3
Mineral fuels, lubricants and rel. Materials	476	1.7	1.6
Animal and vegetables oils, fats and waxes	218	0.8	3.8
Commodit. and transactions n.e.c.	156	0.6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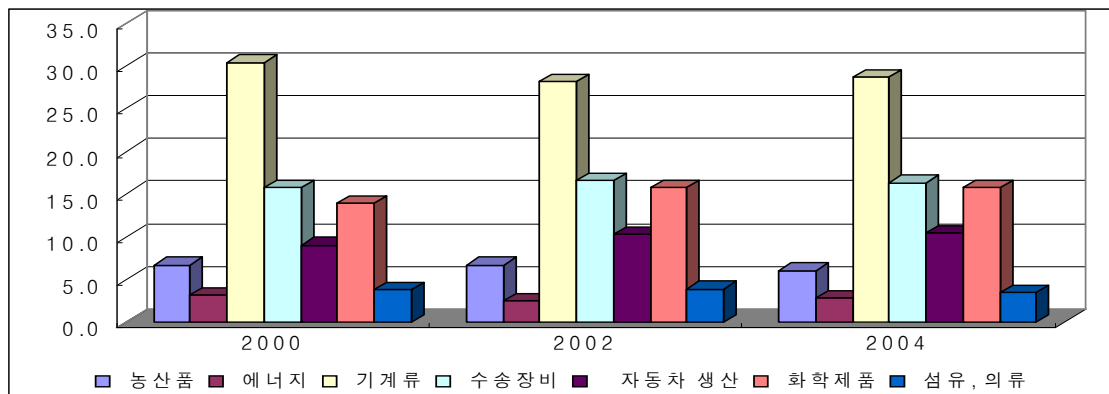


<표와 그림> EU(25국)의 산업별 對세계 수출(selected years)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00		2002		2004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총계	856728	100.0	900389	100.0	963709	100.0
기초산업:	103681	12.1	101024	11.2	106481	11.0
농산물	57770	6.7	60649	6.7	58655	6.1
에너지	27769	3.2	22974	2.6	27757	2.9
제조업:	734533	85.7	779310	86.6	814397	84.5
기계류	260474	30.4	253969	28.2	276652	28.7
수송장비	135459	15.8	149355	16.6	157550	16.3
자동차	77607	9.1	92542	10.3	101238	10.5
화학제품	119603	14.0	142375	15.8	151921	15.8
섬유, 의류	33356	3.9	35577	4.0	34049	3.5

Note: SITC Rev.3 Product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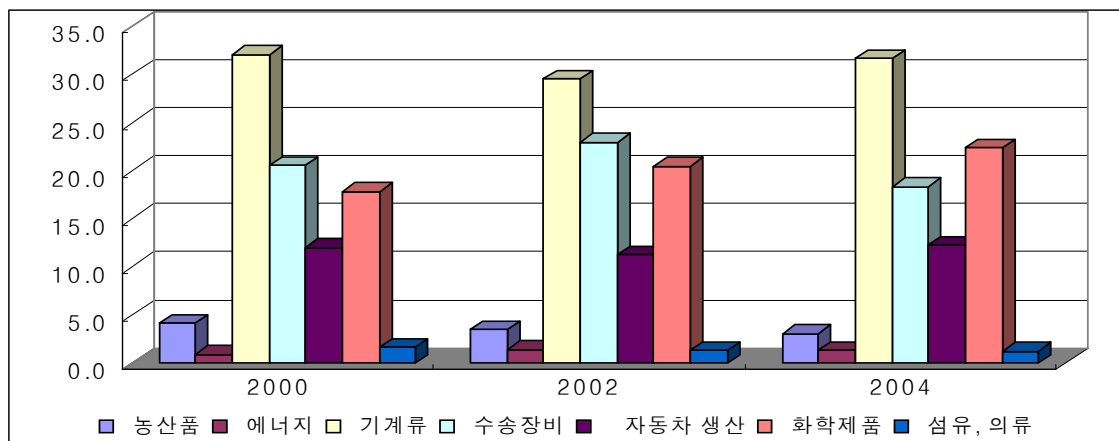


<표와 그림> EU(25국)의 산업별 對Mercosur 수출(selected years)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00		2002		2004		총수출에서의 비중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총계	24215	100.0	18529	100.0	18361	100.0	1.91
기초산업:	1700	7.0	1262	6.8	1168	6.4	1.10
농산물	993	4.1	648	3.5	560	3.0	0.95
에너지	219	0.9	261	1.4	233	1.3	0.84
제조업:	21657	89.4	16633	89.8	16175	88.1	1.99
기계류	7775	32.1	5478	29.6	5831	31.8	2.11
수송장비	4987	20.6	4254	23.0	3362	18.3	2.13
자동차	2905	12.0	2092	11.3	2253	12.3	2.23
화학제품	4316	17.8	3801	20.5	4122	22.4	2.71
섬유, 의류	402	1.7	236	1.3	226	1.2	0.66

Note: SITC Rev.3 Product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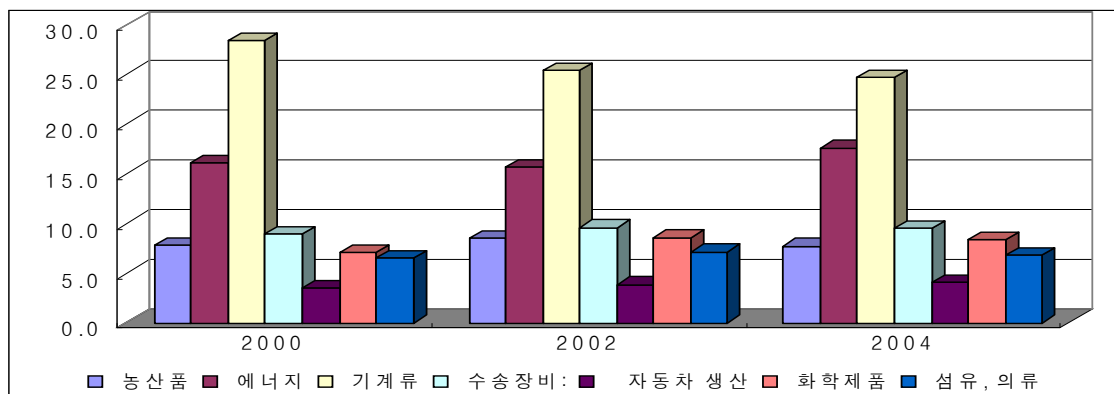


<표와 그림> EU(25국)의 산업별 對세계 수입(selected years)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00		2002		200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995649	100.0	941570	100.0	1029326	100.0
기초산업	287723	28.9	269465	28.6	308008	29.9
농산물	77429	7.8	80196	8.5	79334	7.7
에너지	159574	16.0	147586	15.7	181071	17.6
가공산업	674759	67.8	642001	68.2	675914	65.7
기계류	282676	28.4	239080	25.4	253943	24.7
수송장비	89012	8.9	90094	9.6	97414	9.5
자동차	34789	3.5	36321	3.9	42227	4.1
화학제품	70576	7.1	80626	8.6	86307	8.4
섬유, 의류	64438	6.5	67015	7.1	69705	6.8

Note: SITC Rev.3 Product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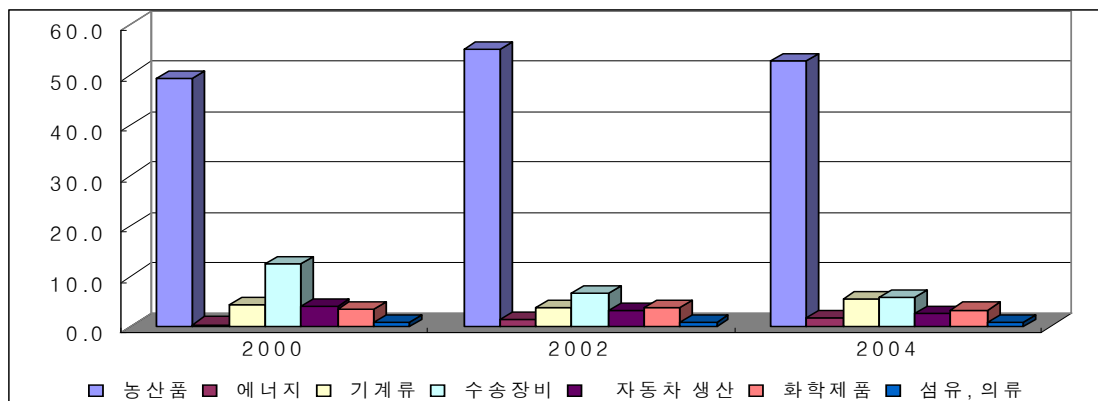


<표와 그림> EU(25국)의 산업별 對Mercosur 수입(selected years)

(단위: 백만 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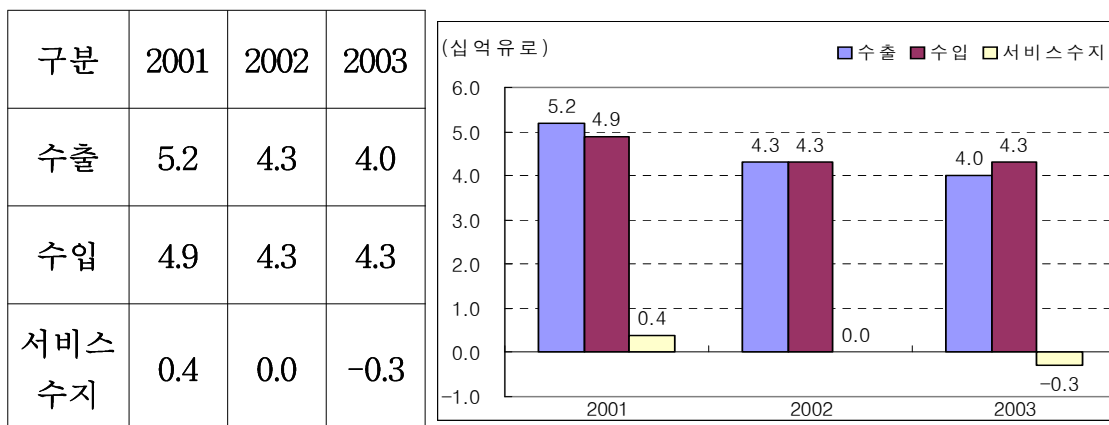
구분	2000		2002		2004		총수입에서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계	24567	100.0	25150	100.0	28304	100.0	2.75
기초산업:	15998	65.1	17572	69.9	19702	69.6	6.40
농산물	12104	49.3	13856	55.1	14926	52.7	18.81
에너지	103	0.4	340	1.4	476	1.7	0.26
가공산업:	8341	34.0	7255	28.8	7727	27.3	1.14
기계류	1041	4.2	967	3.8	1572	5.6	0.62
수송장비	3046	12.4	1699	6.8	1656	5.9	1.70
자동차	997	4.1	781	3.1	730	2.6	1.73
화학제품	838	3.4	968	3.8	936	3.3	1.08
섬유, 의류	193	0.8	219	0.9	251	0.9	0.36

Note: SITC Rev.3 Product Groups



<표와 그림> EU(15국)의 對Mercosur 서비스무역(selected years)

(단위: 십억 유로)



Ⅲ. EU와 Mercosur의 FTA 추진과 주요 논의

1. EU-Mercosur FTA의 의미와 진행 과정

EU의 지역주의는 대상 지역과 국가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중남미지역에서는 주로 개별 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EU는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중남미 국가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고 소지역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체를 상호 대등한 경제협력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남미 지역은 EU의 일방적인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두 지역간 정치적 대화의 증진, 평화와 지역안정, 호혜적 무역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을 지원·협력하는 총체적 파트너십의 대상이 되었다.

EU는 Mercosur, Andean Group(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및 베네수엘라)과 중미공동시장(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와 파나마) 등의 소그룹 경제통합을 지지하고 있으며 Mercosur와는 준회원국 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나아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EU와 Mercosur의 FTA 추진협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양 주체가 상품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정국간 상품교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소극적 FTA에서 나아가 서비스무역과 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포함하는 광의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Mercosur는 EU와의 경제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EU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즉 1994년 제1차 미주정상회담에서 쿠바를 제외한 전 미주국가 34개국이 동의한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추진 협상이 본격화됨으로써 Mercosur는 미국의 주도권을 견제하고 남미 국가의 대외협상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양 경제공동체의 통합논의는 1992년 EU와 Mercosur가 Mercosur의 경제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EU-Mercosur 기구 간 협력협정(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95년에는 두 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 간 제도협력협정(Interregional 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양 경제공동체의 장기적인 무역자유화 추진, EU의 Mercosur기구 자체에 대한 지원 및 양자간 관심 정책에 대한 각료수준의 협의 필요성 등을 포괄하고 있다. 나아가 EU는 두 경제공동체 간 서비스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포함한 자유무역지대의 완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동의 금융협력, 정치·문화·외교부문에서의 협력 등을 통한 준회원국 관계의 수립을 장기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U와 Mercosur는 1999년 11월 제1차 EU-Mercosur 협력협의회에서 경제 통합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양지역간 협상위원회(Bi-regional Negotiations Agreement: BNC) 설립에 합의했고 이후 구체적인 협상은 BNC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표 > EU-Mercosur의 경제협력 논의

일시	주요 협정	주요 내용
1992. 5	기구간 협력협정(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Agreement) 조인	- 경제통합의 제도적·기술적 측면에 대한 지원
1995. 12	지역간 제도협력협정(Interregional Framework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 정치적 대화 증진, 경제 및 기술협력, 무역관련 문제 해결 등 3부분으로 구성 ·양 공동체의 관심정책에 대한 각료 수준 합의 ·장기적인 무역자유화 추진 ·EU의 Mercosur기구 자체에 대한 지원 - EU-Mercosur 각료 이사회 설치 합의
1999. 6~7	제1차 EU-Mercosur 정상회담과 각료이사회 개최	- EU-Mercosur간 통합협상 공식 개시 선언 - Mercosur의 준회원국협정(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
1999. 11	제1차 EU-Mercosur 협력협의회 개최	- 양지역간 협상위원회(BNC) 설립 - 협상구조, 협상방법, 협상일정 등에 합의
2000. 4~ 2005. 9	제1차~제17차 BNC 회담 개최	- FTA 추진 원칙과 협상 방식에 대한 합의 ·무역문제를 다룰 3개의 기술그룹과 특정협력 분야를 전담할 3개의 소그룹 설립 ·동시적이며 일괄적(single undertaking)인 협상 원칙에 합의 - FTA체결에 관련된 논의 내용 ·양측의 비관세장벽 관련 제안서 제출 ·양측의 관세인하안 제출 ·양측의 정부조달, 서비스 및 상품협상 텍스트 제출 - 양측의 FTA 협정안 교환(2004. 6)
2002. 5	제2차 EU-Mercosur 정상회담 개최	- 협상완료시한 설정 합의 실패 - 정치적 대화(political dialogue), 협력(cooperation)과 무역 원활화(trade)에 대한 논의 지속 추진 합의
2004. 5	제3차 EU-Mercosur 정상회담 개최	- 2004.10월까지 FTA 협상 타결 재확인
2006. 5	제4차 EU-Mercosur 정상회담 개최 예정	- Mercosur의 서비스시장과 공공부문, 유럽의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 조율

EU와 Mercosur는 2000년 4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총 17차례의 BNC회담을 개최하였다. 양측은 회담의 3가지 논제 중 정치부문과 경제·사회·문화적 협력부문은 거의 합의점에 도달해 마무리 상태에 있으나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 무역부문³⁾과 농산물시장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처음 제시했던 2004년 10월이라는 협상 타결시한을 넘기게 되었고 구체적인 협상만료시한은 다시 설정되지 않고 있다.

2. EU-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쟁점 사항

EU의 양허안에 따르면 EU는 협정 체결 후 10년에 걸쳐 총교역의 93.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또는 수입쿼터를 증가시킬 예정으로 있다. 한편 Mercosur의 양허안에 따르면 10년간 총교역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여기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EU-Mercosur FTA의 관세철폐 또는 인하 대상품목의 비중은 총교역량 대비 90%~95% 수준에 이르고 있다.

3) EU-Mercosur의 지역간 제도협정에 따르면 무역협상부문은 3개의 소그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제1그룹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제2그룹은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투자 촉진, 제3그룹은 정부조달과 경쟁 및 분쟁해결을 다루도록 위임되어 있다.

<표 > EU-Mercosur FTA 협상의 주요 쟁점 사항

	제안 사항	요구 사항
EU	- 10년간 교역의 93.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 철폐 - 교역의 1.1%에 해당하는 품목(과실류)의 관세 삭감 - 교역의 2.7%에 해당하는 품목(쇠고기, 유제품, 닭고기)의 관세할당 확대 - 농업보조금 문제는 WTO에 위임	- 금융, 통신, 운송 등 서비스시장과 정부조달시장 개방 - 투자보장협정 체결 - 피혁, 섬유, 금속, 비철금속, 자동차와 차량용 부품의 자유화
Mercosur	- 10년간 교역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 철폐 - 교역의 0.4%에 해당하는 품목(차량용 부품 등)의 관세 인하 - 섬유, 신발, 기계, 철강제품, 원당은 예외품목 인정	- EU의 농업보조금 폐지 - 농산물 관세 인하폭 확대 - 설탕, 주스, 커피, 대두유 등의 농산물에 대한 자유화 - 육류, 바이오에탄올, 유제품에 대한 관세할당 확대⁴⁾

주: 관세 철폐 및 인하 대상 품목의 비중은 총교역품목 대비 대상품목의 비중

자료: 권기수(2004)

그러나 EU의 농산물 시장 자유화와 Mercosur의 서비스 및 공공부문 개방이라는 문제가 FTA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즉 Mercosur는 EU가 민감품목 또는 예외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설탕, 주스, 커피, 대두유 등 농산물, 그리고 육류와 유제품 등 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EU가 WTO 농산물 협상 결과에 준해서 처리하기를 바라는 농업보조금 문제도 Mercosur가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2005년 9월 제17차 BNC회담에서 EU는 Mercosur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의 99%를 자유화하겠다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⁵⁾ 즉 향후 10년 이내에

4) 2004년 7월 제15차 BNC 협상에서 EU측은 옥수수, 쌀 등 농산물, 쇠고기와 유제품 등 축산물에 대한 관세할당을 이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WTO의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조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Mercosur측에서는 일부 상품의 관세할당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과 동시에 적용된다는 이전 양허안의 내용이 관세할당의 적용은 협정 체결 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은 감소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5) 2004년 중 EU는 총 77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수입했으며 이 중 약 22%인 170억 달러가 Mercosur로부터 수입되었다.(Eurostat)

Mercosur가 EU로 수출하는 농산물 중 88%의 관세를 철폐하며 관세할당 대상품목을 9%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협상안은 기존 EU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Mercosur가 기대하고 있는 올리브유, 담배와 쇠미 등은 향후 10년간 50% 관세 인하 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쌀, 옥수수과 마늘, 육류와 유제품의 추가적 관세할당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Mercosur측의 불만으로 남아있다.

한편 EU는 Mercosur의 금융, 통신, 운송 등 서비스부문과 정부조달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Mercosur측은 서비스 및 공공부문의 개방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은 공공부문 개방을 요구하는 한 추가적인 협상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EU측은 농산물시장 자유화에 관한 한 추가적인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Mercosur의 각 회원국도 서비스와 공공부문 개방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 단일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베네수엘라의 Mercosur 회원국 신규가입, 그리고 우루과이의 미국, 중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과 Mercosur 탈퇴 조짐⁶⁾ 등으로 Mercosur측의 단일 협상안 도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6) 최근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회원국간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Mercosur 가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는 역외국가와의 개별적인 FTA 체결을 금하고 있는 회원국 규정에 반하여 미국, 중국과의 FTA 추진 의사를 밝힘으로써 Mercosur 탈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IV. EU-Mercosur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1. 서비스 자유화

EU-Mercosur FTA는 단순히 농업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시장 자유화,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규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 FTA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는 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따른 효과만을 분석하고, 서비스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Mercosur FTA 협상에서도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농산물시장 개방과 더불어 핵심 이슈이다. 따라서 본고는 상품의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서비스시장 개방을 포괄하여 EU-Mercosur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서비스부문은 고용과 GDP 구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무역규모는 1980년 1조 9,700억 달러에서 2002년 6조 2,700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6.5%에서 2002년 20%로 증가하였다.(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3)

FTA로 양국간 서비스 무역장벽이 축소 또는 철폐될 때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균형연산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Model)을 재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Brown et al.(1996), Chadha(2000) 등에서의와 같이 서비스 무역장벽의 철폐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일반 상품의 관세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유사하게 취급한다. 즉,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듯이, 서비스의 무역장벽이 제거되면 수입되는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가정 하에 CGE 모형을 구성한다.⁷⁾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비스 교역장벽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치화된 값으로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서비스부문의 무역장벽은 간접적

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ertel et al.(2002) 및 박순찬(2004)을 참고.

인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UR 당시 각 국가가 제출한 양허안을 이용하여 서비스 교역장벽을 계량화한 Hoekman 지수를 이용한다.⁸⁾

<표>은 Hoekman(1995)이 산출한 각 국가의 서비스 업종별 무역장벽지수를 본 연구의 국가 및 산업분류에 맞도록 재조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oekman은 국가별로 각 서비스 산업의 무역장벽지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분류한 그룹의 무역장벽으로 나타내기 위해 무역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당그룹의 무역장벽지수를 다시 계산하였다.

<표> 서비스산업 부문의 관세 상당치

서비스산업 구분	EU	Mercosur
유통 서비스	10.0	24.5
운송, 보관, 통신	182.0	132.7
금융 및 사업	27.2	44.0
기타 서비스	23.6	33.4

출처: Hoekman(1995), 자체 계산

Mercosur의 운송, 보관 및 통신서비스의 교역장벽이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R 당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모두 상당 수준으로 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2. 분석모형, 데이터 및 시나리오

본고의 CGE모형은 EU, Mercosur, 한국 등 8개 국가와 농산물, 제조업 및 서비스 등 15개 산업으로 구성되었다. 8개 국가와 15개 산업분류는 아래 <표>에 제시했으며 데이터는 GTAP Database(version 5)를 이용한다.

8) 서비스 교역장벽을 측정하는 방법은 빈도측정(frequency measures), 양적측정(quantity-based measures)과 가격측정(price-base measures) 방식이 있다. 빈도측정방법은 전체 개방항목 중 각 국가가 개방을 약속한 항목의 빈도를 이용하여 교역장벽을 계량화한다. 양적측정방법은 계량모형(주로 중력모형)으로 각 산업 및 국가의 무역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회귀분석의 잔차항을 이용하여 무역장벽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가격측정방법은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계량분석하고 국가간 비교를 통해 무역장벽을 추정한다.

<표> 국가, 산업분류 및 대체탄력성

국가구분	산업구분	수입품간의 대체탄력성
한국 EU Mercosur 일본 중국 미국 ASEAN 기타	농산물	4.539
	임수산물, 광물	5.600
	가공식품	4.709
	섬유	6.305
	화학	3.800
	철강	5.600
	자동차 및 부품	10.400
	기타 운송장비	10.400
	전자	5.600
	기계	5.600
	기타 제조업	5.602
	유통	3.800
	운송 및 통신	3.800
	금융	3.800
	기타 서비스	3.898

EU-Mercosur FTA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각 산업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어느 정도 축소 또는 철폐될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각각의 경우를 분석해야 하는 바, 본고는 EU와 Mercosur의 양허안에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 경우를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시나리오 I 은 EU와 Mercosur가 각각 제시한 개방안을 고려하여 EU는 농산물의 96.2%를 개방하고 Mercosur는 농업 및 제조업의 90%를 개방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서비스는 제외한다. 시나리오 II는 EU와 Mercosur가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교역품목을 완전 개방하는 경우이다.

3. 분석결과

<표>는 EU-Mercosur FTA의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일부 농산물이 제외되고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지 않는 시나리오 I에 비해 완전개방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II의 경우에 FTA 당사국인 EU와 Mercosur의 후생 및 국내총생산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거시 경제적 영향

구분		국내총생산	후생	수출	교역조건
시나리오 I	EU	0.05	0.03	0.38	0.04
	Mercosur	0.80	0.21	7.47	0.76
	한국	-0.12	-0.03	-0.06	-0.05
	일본	-0.10	-0.01	0.05	-0.06
	중국	-0.08	-0.01	-0.06	-0.03
	미국	-0.10	-0.01	-0.07	-0.06
	아세안	-0.06	-0.01	-0.06	-0.01
	기타	-0.08	-0.02	-0.05	-0.04
시나리오 II	EU	0.13	0.20	0.47	0.06
	Mercosur	6.77	1.66	19.86	5.03
	한국	-0.45	-0.08	-0.22	-0.12
	일본	-0.49	-0.04	-0.03	-0.22
	중국	-0.35	-0.04	-0.19	-0.07
	미국	-0.51	-0.04	-0.29	-0.22
	아세안	-0.45	-0.08	-0.30	-0.10
	기타	-0.46	-0.08	-0.26	-0.15

부분개방에 그치는 시나리오 I의 경우, EU와 Mercosur의 국내총생산은 각각 0.05% 및 0.80%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여 완전개방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II의 경우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은 0.13% 및 6.7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방의 폭이 넓을수록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더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개방에 따른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향상이 해당국가 경제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서비스부문을 포함한 FTA 체결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다음 2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는 서비스부문이 국가경제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무역자유화를 통한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통한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 향상이 제조업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가의 국내총생산과 후생은 감소하며, EU와 Mercosur의 무역자유화 정도가 큰 시나리오 II에서 더 크게 감소한다. EU-Mercosur FTA로 인해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최소 0.03%에서 최대 0.45%까지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생산요소의 실질가격변화

(단위: %)

구분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EU	Mercosur	한국	EU	Mercosur	한국
비숙련노동	0.10	0.14	-0.03	0.27	1.8	-0.10
숙련노동	0.12	0.28	-0.04	0.29	2.47	-0.12
자본	0.07	0.39	-0.03	0.25	2.31	-0.10

FTA를 체결하는 EU와 Mercosur의 노동 및 자본의 실질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한국 생산요소의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ercosur의 경우, 숙련노동의 실질임금은 시나리오 I에서 0.28%, 완전 개방되는 시나리오 II에서는 2.47% 증가하여 EU-Mercosur FTA의 가장 큰 수혜자는 Mercosur의 숙련노동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경우에도 비숙련노동에 비해 숙련노동의 실질임금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무역자유화는 미숙련노동과 숙련노동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킨다는 Feenstra and Hanson(1996), Hanson(2003)의 실증분석과 일치한다.

<표> 산업 생산의 변화(%) 시나리오 I

구분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EU	Mercosur	한국	EU	Mercosur	한국
농산물	-0.92	4.02	-0.02	-0.51	6.06	-0.09
임수산물, 광물	-0.05	-0.42	-0.04	-0.11	-1.74	-0.14
가공식품	-1.21	5.08	-0.09	-0.87	7.94	-0.26
섬유, 의류	0.08	0.29	-0.03	-0.29	4.5	0.08
화학	0.2	-0.36	-0.07	0.09	3.12	-0.25
철강	0.38	-2.34	-0.04	0.25	-2.56	-0.07
자동차 및 부품	1.43	-10.76	-0.57	1.7	-13.23	-0.65
운송장비	-0.35	-0.13	0.16	-1.68	-0.74	-0.02
전자제품	0.2	-0.61	-0.05	-0.3	-0.19	-0.19
기계장비	0.64	-4.65	-0.19	0.43	-5.4	-0.34
기타 제조업	0.06	0.07	-0.06	-0.01	2.68	-0.26
유통	0.06	0.94	-0.11	0.13	6.59	-0.44
운송, 통신	0.08	0.58	0.12	-1.16	18.18	-0.85
금융	0.03	0.76	-0.11	0.03	6.16	-0.41
기타 서비스	0.06	1.28	-0.12	0.15	7.39	-0.47

<표>는 추정된 산업별 생산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EU에서 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자동차 및 관련부품이며, Mercosur에서는 농산물의 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EU-Mercosur FTA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이 핵심 이슈가 되는 이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포함하는 시나리오 II의 경우, Mercosur의 서비스 부문이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I에서 Mercosur의 국내총생산이 0.8%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시나리오 II에서 6.77% 증가한 것은 서비스 개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EU-Mercosur FTA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한국의 산업은 자동차 및 그 관련부품으로 나타났으며, 완전개방을 가정한 시나리오 II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은 약 0.6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는 시나리오 I에 따른 각 국가의 지역별 수출 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우선 EU와 Mercosur간의 무역은 크게 증가하는데, EU의 對Mercosur 수출은 약 193억 달러 증가하고, Mercosur의 對EU 수출은 약 105억 달러 증가한다. 이에 반해 EU와 Mercosur의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가로의 수출은 감소한다. 이는 양자간 특혜협정인 FTA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역외국가의 對Mercosur 수출이 감소하면서 역외국의 수출이 다른 역외국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국, 아세안 및 기타 국가의 총수출은 감소한 반면, 역외국가인 일본, 중국 및 미국의 총수출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중국 및 미국의 對EU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일본은 자동차 및 관련부품, 기계의 對EU 수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중국은 섬유, 기타 제조업 그리고 미국은 기계, 전자산업의 對EU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EU의 對Mercosur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나리오 II의 경우 시나리오 I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는다.

<표> 지역별 수출입의 변화: 시나리오 I

(단위: 백만 달러)

	EU	Mercosur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아세안	기타	총계
EU	-6,567.6	19,306.2	-147.4	-439.5	-176.0	-1289.7	-386.1	-2,587.4	7,712.4
Mercosur	10,478.8	-3,334.4	-54.6	-177.2	-93.7	-280.6	-113.9	-763.3	5,661.0
한국	146.4	-402.8	0.0	15.2	18.7	26.9	33.2	102.6	-59.7
일본	625.0	-740.7	30.2	0.0	54.5	164.2	138.2	294.8	566.1
중국	167.5	-265.3	5.5	5.2	0.0	7.7	13.1	78.5	12.3
미국	1,062.3	-2,373.5	52.2	138.0	47.9	0.0	134.0	1,026.1	87.3
아세안	132.7	-139.4	-3.9	-30.9	-1.3	-71.0	-23.2	26.1	-110.8
기타	467.3	-1,082.2	10.0	33.6	6.7	-32.2	48.2	354.4	-194.2

V. 결론

본고는 최초의 관세동맹간 FTA로 주목받고 있는 EU-Mercosur FTA의 협상쟁점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policy implications here>

참고문헌

- 김세원(2004), 「EU 경제학-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 권기수(2003), “Mercosur-EU간 FTA 통합협상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난항”,
KIEP 세계경제 제 6권 3호, pp. 24-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순찬(2004), “FTAA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연구*, 제10권
2호, pp. 39-60.
- Brown, D., A. Deardorff and R. Stern. 1996. "Modelling Multilateral Liberalization in Services", *Asia-Pacific Economic Review* 2, 21-34.
- Chadha, R. 2000. "GAT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A Case Study of India", in R. M. Stern ed. *Servic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Measurement and Modeling, Sectoral and Country Studies, and Issues in the WTO Services Negotiation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Michigan.
- Feenstra R.C. and G.H. Hanson(1996), "Foreign Investment, Outsourcing and Relative Wages", in R.C. Feenstra, G.M. Grossman and D.A. Irwin,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Papers in Honor of Jagdish Bhagwati*, MIT Press, 89-127.
- Hanson, G.H.(2003), "What Has Happened to Wages in Mexico since NAFTA?", NBER Working Paper No. 9563.
- Hertel, T.W., K. Anderson, J. Francois and W. Martin (2002), "Agriculture and Non-Agricultural Liberalization in the Millennium Round", GTAP Working Paper, No. 08.
- Antonio Estevadeordal and Ekaterina Krivonos. December 2000. *Negotiating Market Acces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Mercosur: Issues and Prospects*. Occasional Paper 7. INTAL-ITD-STA Series. Buenos Aires: IDB-INTAL.
- European Commission. 2002. *The EU's relations with Mercosur*.

- Mariela Arenas. October 2002. *Economic Re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and Mercosur*. Jean Monnet/Robert Schuman Paper series Vol.1 No. 9. University of Miami.
- Marta Reis Castilho. dezembro de 2001. *O Acesso das Exportacoes do Mercosul ao Mercado Europeu*. Texto para Discussao No 851. Rio de Janeiro: IPEA.
- Mercosur/European Union Business Forum. May 2002. *Madrid Declaration*.
- Oxford Analytica 각 일자.
- Paolo Giordano. January 2003. *The External Dimension of Mercosur: Prospects for North-South Integration with the European Union*. Occasional Paper 19. INTAL-ITD-STA Series. Buenos Aires: IDB-INTAL.
- Robert Devlin. December 2000. *Th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and MERCOSUR-European Union Free Trade Process: Can They Learn Something From Each Other?* Occasional Paper 6. INTAL-ITD-STA Series. Buenos Aires: IDB-INTAL.